

# 두려운 '눈길 운전'... 겨울철 드라이빙교육 '눈길' 타이어만 바뀌어도 안전하게 썰썰

## | 체험기 | BMW 윈터 드라이빙

총 120분 겨울철 안전운행 위한 이론·실전 드라이빙 프로그램

다양한 코스서 일반·썸머 타이어 성능 비교 가능... 차이점 뚜렷해



눈길 위에서 스노우 베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3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운전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도로 위 운전은 두려움이 앞선다.

눈이 깔린 도로는 운전자들이 평소 접하지도 못할 뿐더러 조작도 쉽지 않다. 눈길에서 차가 의도한대로 움직이지 않고 밀리면서 회전하면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다. 눈길 운전의 두려움을 없애고 위험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주 접하고 경험을 쌓는게 가장 좋다.

이에 BMW 드라이빙센터(인천 영종도)에서 겨울 시즌 동안 진행하고 있는 안전운전교육 '스노우 베이직'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봤다. 2014년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총 120분으로 구성됐다. 눈길에서 다양한 코스를 적용해 운전자가 직접 보고·듣고·느낄 수 있다.

### ◆눈길 주행 '겨울철 타이어' 필수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20분의 안전 이론 교육 후 60분 동안 다목적 코스에서 일반·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의 가속·제동 성능을 비교 체험할 수 있다. 30분 가량의 윈 선회 코스에서는 DSC(Dynam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을 완전히 제한해 다이내믹한 눈길 주행도 경험할 수 있다. 예약만 하면 BMW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론 교육에서 차량 제동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속 60km로 주행 중인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정차까지 제동 거리는 28.7m다. 눈길에서는 63.7m이며 빙판길에서는 158.7m에 달한다.

이후 후륜구동에 겨울철(윈터) 타이어(한국타이어 아이셉트 예보2)를 장착한 BMW 330i M 스포츠패키지에

답습해 다목적 코스로 이동했다.

윈터 타이어는 빙판길에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말랑말랑한 재질의 고무 성분과 트레드(노면과 닿는 타이어 표면)의 홈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눈길에서 윈터 타이어와 썸머 타이어의 차이는 확인했다. 다만 윈터 타이어는 마른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고속 주행시 제한 속도(최고 180km/h)도 있다.

실제로, 썸머 타이어가 장착된 430i(330i와 유사 스펙)를 타고 같은 코스를 주행했지만 타이어 앞바퀴 방향을 11자로 유지해도 타이어가 눈길에 헛돌면서 속도를 높이는게 힘들었다.

DSC 장치를 끄자 차량 컨트롤은 생각할 수 없었다. 바퀴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스티어링 휠 조작도 의미가 없었다. 또 스티어링 휠의 방향을 조금만 돌려도 눈길에서 미끄러져 제동이 쉽지 않았다.

반면 윈터 타이어와 사륜구동을 동시에 적용하자 눈길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었다. BMW xDrive에 윈터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으로 눈길 코스를 주행하자 같은 도로 상황임에도 미끄러짐이 적어 바퀴가 헛돌거나 가속에 주춤 없이 주행이 가능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윈터 타이어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3월 사이에 사용을 권장한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윈터 타이어는 겨울에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다. 업체들이 제공하는 타이어 보관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

도 현명한 방법이다.

### ◆운전 자세 꼼꼼히 체크

운전자가 주행 중 고속주행 및 다양한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전 자세가 중요하다. 드라이빙 교육을 받을 때 차에 올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트 포지션의 조절이다. 시트 높이는 머리 위로 손가락 네 개 가량 들어갈 정도여야 한다. 그래야 멀리 볼 수 있다. 너무 높으면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향해 상대적으로 시야가 좁아진다.

시트와 페달까지의 간격도 잘 조정해야 한다.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굽혀진 자세여야 한다. 너무 펴져 있으면 페달에서 발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 사고 시 바로 골절로 이어진다. 무릎이 굽혀져 있어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운전대를 잡을 때는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한다. 한 손만으로 핸들 윗쪽을 잡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얼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팔꿈치는 약간 굽혀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눈길에서는 핸들링 양이 평소보다 많아져 몸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트 각도를 조금 더 세우고 팔꿈치를 굽혀야 핸들링을 보다 가볍게 할 수 있다. 헤드레스트 높이는 사고 시 경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 중앙이 헤드레스트 중앙과 일치하게 조절해야 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사과같지 않은 사과라도 좋아요”

# 배터리논란에도 애플 충성 여전?

대리점엔 아이폰 구매자로 복적 마니아층 많아 매출에 영향 없어 중고 아이폰 매입단가는 낮아져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아이폰X'를 살펴보는 소비자들. /정연우 인턴기자

“애플은 끔찍 않습니다. ‘애플’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아직 상당하거든요.”

애플이 아이폰6와 6S의 성능을 이용자 몰래 떨어뜨린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의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들은 애플의 ‘아이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같이 전했다.

지난 11일에는 애플 배터리 게이트 사태 이후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지만, 일명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아이폰 충성고객은 여전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150명이 참여했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 등을 합쳐 1인당 220만 원으로 산정됐다.

같은 날 찾은 서울 광화문역 부근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는 휴대전화 프로모션 행사로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여전히 북적였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아이폰X(텐)’을 살펴보고 있던 대학생 김모(여·24)씨는 “아이폰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아이폰9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X’는 배터리 게이트에도 지난달만 300여대가 팔렸다”며 “아이폰은 워낙 마니아 층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게이트가 사실상 매출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화로 대리점에 문의하는 고객이 몇 분 있었지만 큰 문제제기는 없었다”고도 전했다.

애플 아이폰의 고의 성능저하 파문에도 아이폰의 제품 브랜드 이미지는 여전히 금이 가지 않은 셈이다. 실제 서울 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는 여전히 아이폰8, 아이폰X의 홍보물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배치돼 있다. 아이폰 마니아층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전반

적으로 20대~30대 젊은 층의 소비자들이 많았다.

평소 충성 고객이 많아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애플 아이폰의 기세가 뚜렷한 중고폰 시장에서는 중고 아이폰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고폰 전문업체 관계자는 “중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오히려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 저렴해져서 더 인기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 대책으로 배터리 교체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국내에서도 지난 2일부터 문제가 된 모델을 대상으로 배터리 교체를 시작하고 있다.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배터리나 부품 등을 교체해야 할 경우도 있다.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을 인하하면서 오히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중고 스마트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고 아이폰 매입단가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LG유플러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중고폰 매입단가’를 보면, 지난 4일 이후와 비교해 11일 기준으로 ‘아이폰6’ 64기가바이트(GB) 모델은 매입단가가 14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아졌다. ‘아이폰7’ 32GB 단말 역시 같은 기간 31만5000원에서 28만5000원으로 내려갔다.

한편,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 배터리 교체 대상 기종은 아이폰6,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 모델로, 10만원인 배터리 교체비용을 3만4000원으로 낮췄다. 배터리 교체는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애플 이용자들이 1억대 분량 배터리를 교체하면 애플은 2017년 순이익의 2.3%인 11억 1000만달러(약 1조1900억원)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나인 기자 정연우 인턴기자 silkni@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KT 황창규 회장이 5G 커넥티드카와 함께 성화봉송을 진행하고 있다. /KT

## 드론에 커넥티드카까지... KT '5G 성화봉송'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최초 진행 황창규 회장 성화봉송 주자로

KT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스페셜 성화봉송’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페셜 성화봉송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5가지 목표인 문화·환경·평화

·경제·ICT 올림픽의 대표 지역으로 선정된 도시에서 각각의 테마에 맞춰 대한민국의 현재 가치와 미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다.

문화올림픽 대표 도시로 선정된 서울시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성화봉송 프리젠틱 파트너인 KT가 공동 주관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광화문에서 5G 커넥티드 카와 함께 성화를 이어 받았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발한 황창규 회장은 광화문광장 남단까지 성화를 이어 달렸다. 5G 커넥티드 카에 탑재한 성화봉송 부주자(운전자)는 5G 단말과 차량 외부에 설치한 가상현실(VR) 카메라로 황창규 회장의 성화봉송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광화문광장 일대 설치한 5G 네트워크를 거쳐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 스크린으로 전송됐다.

황 회장은 200m 정도를 달린 후 광화문광장 남단 왼편에서 KT그룹 신입사원들에게 성화를 전달했다. 올해 1월 KT그룹에 입사한 신입사원 남녀대표 2명이 앞에서 성화를 들고 뛰었으며, 나머지 신입사원 250명이 뒤에서 행렬을 만들었다. 이들은 손목에 착용한 LED 팔찌를 이용해 ‘2018’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KT그룹 신입사원들은 광화문광장 남단을 돌아 교보빌딩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5G 드론에 성화를 인계했다. 사람이 아닌 드론이 성화를 봉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세계 최초 드론 성화봉송을 위해 ‘5G 드론’을 개발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 드론 야간비행 승인을 받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 LG유플러스 “약정 남아도 위약금 없이 할인”

상당수 25% 요금 할인 받게 될 듯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 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 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은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면 위약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만약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나 기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위약금 부담 때문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지 못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인 기자